

## ■ 경제지표로 본 민선 4기 전반기 광주·전남

# 일자리 창출은 미흡 수출은 크게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4기 들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지사 인터뷰 3면> 이는 광주일보가 30일 민선자치 4기 상반기

(2006년 7월~2008년 6월) 마무리에 맞춰 광주·전남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고용이 등에 따른 경기 침체와 지자체의 재정력 부족, 투자기업 사후 관리 미흡 등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 광주시

277개 기업 8천 997억 투자 유치

취업자는 지난 5월말 현재 2년 전보다 3만4천명 증가한 64만5천명을 기록했다. 민선 4기 일자리 창출 목표 13만4천개의 25.3%를 달성한 셈이다. 실업자는 2만7천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277개 국내·외기업으로부터 8천99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170건의 투자협약 가운데 60%의 실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산업활동면(4월말 기준)에서는

취업자 3만4천명 증가, 목표의 25%

산업생산지수가 121.8로 2년전보다 23.1% 감소했지만, 수출은 71억8천만달러(2005년)에서 101억4천만달러(2007년)로 29.1% 상승했다. 그러나 5월 어음부도율은 0.14%로 전국 평균(0.04%)의 10배에 달했고, 2년전보다는 0.01% 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도 2006년 5월보다 7.6% 올랐다.

이런 가운데 인구는 2007년 말 현재 142만3천460명으로 2년 전보다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예산은 2005년 2조311억원에서 올해 2조5천838억원으로 27.2%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57.6%에서 50.4%로 낮아졌다. 사회복지예산은 2005년보다 154.1% 늘어난 6천16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전남도

예산 11.5% 증가 복지투자 급증

물가 7.2% 상승... 재정자립 11%

고용사정이 악화됐다. 취업자는 92만5천명에서 91만4천명으로 1.2% 줄었다. 실업자는 5천명 늘어난 2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기간 동안 200여건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19개 업체는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투자를 포기했다. 산업생산지수는 115.9로 0.9% 증가했고, 수출도 162억5천300만달러에서 219억8천800만달러로 35.2%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자물가는 7.2% 상승해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97만6천400명인 인구는 지난해 194만4천900으로 2년 동안 3만여명이 줄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은 지난 2005년 3조7천957억원에서 올해 4조2천331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11.9%에서 11.0%로 낮아졌고, 재정력지수는 31.86%에서 27.

76%로 떨어졌다. 사회복지예산은 7천252억원에서 1조2천364억원으로 70.2%나 급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산업 유치 등 경제 살리기에 힘을 썼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사회복지 예산 증가, 세원 부족 등으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정·윤영기기자 jnews@kwangju.co.kr



## 제 53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발표회

광주일보사 주최 '제 53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과 작품 발표회'가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화순 만연초등학교 한국창작 무용팀이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이날 시상식에서는 송원초등학교·금당중·광주예술고등학교가 종합최고상을 차지했으며, 살레시오초등학교·동아여중·대성여중·광주수피아여고가 종합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 부문에서는 가야금산조의 윤난솔(장성여중 3년) 양이 국회의장상을, 성악의 임승준(여수여양고 3년)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23명이 최고상을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촛불시위 원천봉쇄·최루액 살포”

### 정부, 대국민 발표문

정부는 29일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과격·폭력 시위를 조장·선동하

거나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과거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심야 불법시위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관련기사 8면> 이날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남독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면서 급기야 어제 밤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사법 조치와 함께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 기조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서는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날 담화 발표 현장에는 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노동부장관과 조종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에 3만명 수용 야구장

노후 무등경기장 대체... 하반기 타당성 조사

광주에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새 야구장 건립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 관계자는 29일 "무등경기장의 노후화로 야구장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3만석 규모의 새 야구장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용역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용역에는 야구장 규격과 건립 부지 및 교통 접근성, 신축 후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체 사업비는 1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이 가운데 30%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65년 완공된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관람석(최대 1만5천석)이 좁고 주차시설도 열악해 관람

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같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04년 660억원(국비 300억원 포함)을 들여 야구전용구장 건립을 시도했으나 정부의 투·융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보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균형예산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므로 신축 필요성을 적극 개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야구팬들은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 코너 등을 통해 야구장 신축 청원운동을 펴왔으며 29일 현재 5천29명이 서명한 상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2008 SUMMER 밴쿠버 국내영어캠프

2008 여름방학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08 여름방학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08 여름방학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